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 섬기는 생활
- 주는 생활
-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제 9학기 목회자세미나 “현대사회와 교회” 주제로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 /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에서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제 9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3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10주간 매주 월요일에 강남 YMCA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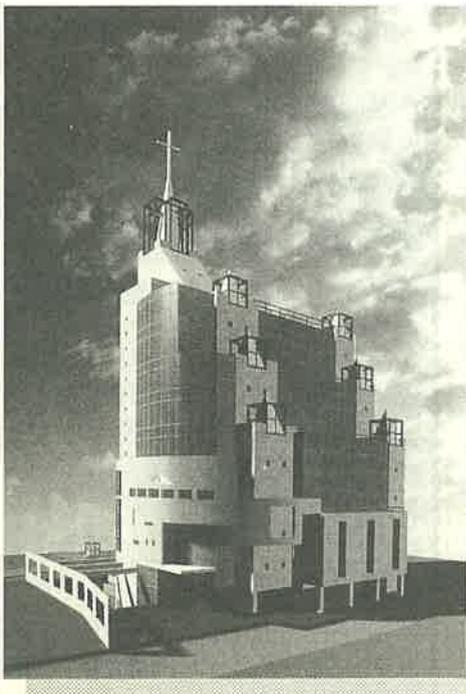
이번 학기의 주제는 “현대사회와 교회”로,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교회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감에 따라 그 원인과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대중문화, 의료윤리와 같이 현대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성경연구와 신학강의를 통해 심도있게 다룰 것이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크리스찬의 정치의식’을,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목회자와 가정생활’이나 ‘신세대의 고민’ 등 쟁점이 되는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1992년 3월에 개원한 이래 ‘설교와 목회’, ‘21세기를 향한 바랍직한 교회갱신과 목회’,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갱신’,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 ‘강해설교와 영적갱신’, ‘경건과 교양’, ‘목회와 영성’, ‘현대교회와 인성회복’ 등 한국교회 갱신에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총 여덟 학기의 목회자신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매 학기 700명이 넘는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지속적인 말씀공부와 신학적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대교회의 목회방향을 새롭게 조명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네 학기를 수료한 목회자들로 동문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와 기도협력을 통해 교회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좀더 폭넓은 목회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프로그램

실시일	제 1 교시 14:00 - 15:30	제 2 교시 15:50 - 17:20
3. 25.	로마서강해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한국교회 성장 둔화 - 그 원인과 대책 이만열 박사 (숙명여대)
4. 1.		크리스찬의 정치의식 홍치모 박사 (충신대)
4. 8.		통일 이전과 이후 한국교회의 역할 노경선 박사 (연세대)
4. 15.		목회자의 가정생활과 교회성장 정동섭 박사 (침신대)
4. 22.		현대교회와 의료윤리 맹용길 박사 (장산대)
4. 29.		포스트모더니즘의 극복 비책 김영한 박사 (숭실대)
5. 6.		신세대의 고민과 처방 류상렬 박사 (성결신대)
5. 13.		타종교와의 대화 전호진 박사 (ACTS)
5. 20.		대중문화와 교회 전대련 목사 (서울 YMCA)
5. 27.		급변하는 사회와 21세기 비전 이원설 박사 (전 한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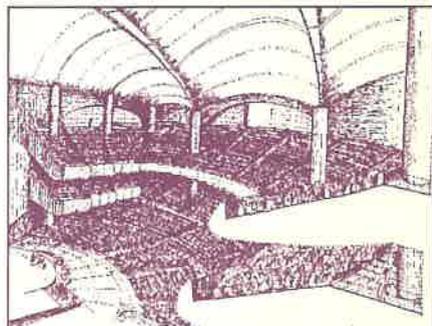


###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센터’ 염원을 담은 새 예배당의 모습

설계회사가 정해짐에 따라 새 예배당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21세기 도시교회로서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고자 세심한 고려 끝에 설계한 이 예배당은 경건한 예배에 중점을 두는 우리교회의 목회방침과 교육·선교·구제의 삼대 목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실용적 기능과 현대적 이미지를 부합시켰다.

건물의 외관은 공원과 아파트 밀집 지역이면서 공원이 근접해 있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열린교회’를 지향하였다. 아울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어 디자인하였다.



특히 예배당 정면에는 일곱교회를 상징하는 일곱춧대를 세웠는데 일곱교회란 곧 세계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센터가 될 것을 간구하는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반영한 것이다.

창세기 강해



# 누가 요셉을 위하여 울었나?

(37장 25 - 35절)

이종운 목사

본문에는 요셉이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 이방에 팔리우는 고통의 순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채색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던짐을 받는 곤욕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괴로와하며 애걸했던 사실은 그로부터 22년 후 총리대신이 된 요셉 앞에서 탄식하는 형들의 고백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42:21). 고통하며 절원하던 요셉을 위해 누가 울었던가요?

## 1.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요셉을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오허려 무관심과 조롱과 위선에 찬 형들의 행동은 그의 고통을 더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동생을 두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까(37:25). 피해를 당하는 고통도 컸지만 소외와 무관심에 의해 고통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당하는 피해나 무관심에 의한 고통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혹시 다른 형제에게 무관심하거나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무관심과 이기심이 가득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없는 어두운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울고 있는 자들에게 무관심하다면 요셉의 형들처럼 잔인한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던 힐난과 조소는 고통을 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육이며 형제’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37:27), 이방인의 손에 동생을 파는 형들의 위선된 행동은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죽이자고 결의했을 때 구덩이에 던져 목숨만은 살리자고 한 르우벤의 제안은 마치 요셉을 위한 것 같지만 충분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그가 선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한 무책임의 결과로 동생은 이방의 손에 넘어가는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불의하고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며 싸워서라도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는 핍박을 받더라도 선한 일이라면 끝까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겠습니까.

## 2.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구덩이에서 울고 있는 요셉을 누가 위로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나 그를 노예로 팔고간 미디안 상인도, 애굽에

서 보디발도, 임금도, 그 누구도 요셉의 눈물에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이 구덩이에서 없어진 것을 알고 옷을 찢고 통곡했지만 그것은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같은 비극을 저주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참으로 울었던 자가 있다면 오직 그의 늙은 아버지 야곱 뿐이었습니다. 요셉의 찢긴 옷을 붙잡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해 애통했습니다(34절). 그는 자녀들의 위로도 거절하고 “내가 슬퍼하며 아들을 만나러 음부에 내려가겠다”고 합니다(35절). 얼마나 비통한 아버지의 울음입니까?

오늘 이같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마치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하여 슬퍼하듯, 우리를 위해 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큰 사랑 때문입니다. 형들의 잔인함과 무관심과 위선적 행동과 큰 대조를 이루는 아버지 야곱의 애통하는 사랑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계셔서 지극한 사랑의 손길을 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불신앙을 보고 우셨습니다(눅19:41).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면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분처럼 여겨져 불평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 보라 귀하지 아니하나...들의 백향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이”(마6:26-30).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잔인한 말을 하고 비난과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장

인인 사울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왕이 된 후에도 신하와 친구들의 반역으로 도망다녔으며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사망에 우겨쌈을 당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맛볼 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요셉의 일생을 살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지도 이르지도 않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고통의 순간에 보호하시고 함께 우셨음을 확인한 요셉은 총리대신이 되어 형들을 만나는 순간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45:8). 우리의 행보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으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만나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울고 계십니다.

### ✧ 순례자 킬림 ✧

#### “자유”

우리는 나무를 심는 자유도 있고 나무를 깎는 자유도 있다. 자유를 찾고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행동은 더욱 소중하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용기와 힘도 필요하지만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지혜와 성실도 필요하다.

자유는 방종하기 쉽고 무질서의 타락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질서와 자제와 규범이 없는 자유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자유라기 보다는 혼란과 파탄만을 가져오게 한다.

자유는 책임의 반석 위에 진리의 벽을 쌓고 미래 희망의 지붕 아래서만 성장할 수가 있다. 책임과 진리 그리고 희망이 빠진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아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중·고등부수련회가 1월 25일(목)부터 2박 3일간 양수리수양관에서 있었다.

“성숙한 기독교학생”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들을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여기에 참가 소감을 씁니다...

## 말씀과 기도와의 새로운 만남

이민산 (중등부)

수련회란 기도와 말씀 만으로 이어지는 다소 따분한 일이라 여겼던 내 선입견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완전히 바뀌었다.

비록 공관복음서로 만족해야 했지만 성경 통독 시간은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고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말씀을 복음서에서 발견할 때, 익숙했던 구절을 그 앞뒤의 말씀과 함께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더 열심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이 벅차왔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 중등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깊은 기도를 드렸고 나 역시 회개와 뜨거운 간구를 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수련회였다. 이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만난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다.

## 학생들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김영현 (중등부 교사)

이번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직장의 일들로 참석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졌고 내 맘속에는 아예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수련회 전날 믿기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기적적으로 주변의 일들이 정리되면서 수련회에 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말았다. ‘교사라지만 내성적인 내가 많은 준비도 없이 어떻게 학생들과 만나야 하나’ 하던 걱정도 강권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하는 기대감으로 변했다.

세상 속에서 온갖 화려함에 접해 있던 중학생들이 과연 수련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지, 수련회가 그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을지 염려하던 것은 모두 기우였다.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을 ‘성숙한 기독교학생’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 각자의 삶 가운데 새로운 꿈을 찾

는 것이 눈에 보였다. 성경통독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본 경험이 없다고 고백하며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게 되었다. 학생들은 허리가 아파 앉아있기조차 힘들면 일어서서라도, 앉드러서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따라 읽으려고 애를 썼다. 하나님이 일어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했다.

그 자리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보았다. 그리고 어린 생명들에게 보여주시는 선교의 꿈, 찬양의 꿈을 함께 나누며 그 꿈을 이루어 가실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다. 수련회 기간 내내 어린 생명들 속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그들을 통해 내게 교훈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 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 저녁 집회시간을 통해 그간 그런대로 잘 해왔다는 신앙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산산조각이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주일성수 · 십일조생활 · 부모님 공경’을 말씀을 따라 철저히 할 것을 결심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 임경민 -

♥ 학원 때문에 수련회에 안오려다 엄마 덕분에 강제로 왔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공부가 최고인줄 알았다. 아무리 교회봉사와 전도를 잘해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보면 속으로 동정심을 가지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성숙한 기독교학생’이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수련회였다. 새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 김승찬 -

♥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특강시간, 제립에 대해 강조하실 때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라, 사랑해라,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라’는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내 비전이 나를 위한 것,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던가를 돌아보게 되었다. - 최정신 -

♥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달란트를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련다. 부모님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에 속상하게 했던 일들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다 씻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다. - 김성훈 -

♥ “훌륭한 목사님과 선생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 이민광 -

♥ 토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내게 이번 수련회는 성숙의 계기가 되었다. 찬양과 기도가 내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느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구나’ 하고 생각했으며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 이종범 -

♥ 하나님께서 친교시간에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나쁜 감정들을 모두 풀어주셨다. 서로가 인사를 나눌때 하나님께서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남을 위해 걱정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다! - 이태조 -

♥ N. L. C. (찬양팀) 최고다!! - 양윤실 -

♥ 매우 즐거웠음. 말씀이 너무 은혜로왔음. 밥도 너무 맛있었음. 숙소도 깨끗했음. 기도도 많이 했음. ... 화장실이 불편했음. - 허홍서 -



♥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엄두도 못냈고 기도도 열중할 줄 몰랐던 내가 놀랍게도 회개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진심으로, 간절히 할 수 있었다. 나를 위한 다른 친구들의 기도를 체험한 것 역시 놀랍다.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정한나 -

♥ 설교시간에 눈물이 나올만큼의 기쁨을 주셨다. 찬양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 기도시간에 입을 열어 주셨다. 친교시간에 친구들의 속마음을 알고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의 친구이시다.

- 백훈 -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

결연현황

1996년 1월 31일 현재(60번까지는 지난 주에 게재됨)

■남선교회: 12교회 ■어진도회: 25교회 ■다락방: 11교회 ■찬양대: 2교회 ■당회소속기관: 2교회 ■교회학교: 1교회 ■개인 혹은 가정: 47교회

번호	노회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61	충남	서천청운	강성동(목)	요한 6선교회
62	경안	은혜	강영숙(전)	마리아 6전도회
63	전서	수양	강재봉(목)	양재 한신다락방
64	경안	시온	김광식(목)	논현5,6,7다락방
65	경안	송일	김기식(목)	미아다락방
66	경서	월천	김승규(전)	강종찬
67	서울강남	장호원묘동	김영환(목)	모세선교회
68	평북	명곡	김은혜(전)	서초 3다락방
69	대전서	울정	김의석(전)	루디아 4전도회
70	경안	안평	문충련(전)	바울 6선교회
71	충북	외천	김종성(전)	민광울
72	군산	신석	김진수(목)	루디아 1전도회
73	경안	산야	이형근(전)	바울 2선교회
74	목포	영암성산	남성함(목)	박금재
75	충청	적성중앙	박병훈(전)	김상철
76	충남	신암	박순배(전)	이관규
77	경서	서곡	박종근(전)	박정선, 김남순
78	경남	내동	배규환(목)	신음식
79	충남	마금해방	송태익(전)	김행근
80	목포	신명	신오식(목)	최용걸, 허상한
81	대전	동수	신형수(전)	루디아 1전도회
82	경서	울곡	엄산덕(전)	에스더 5전도회

번호	노회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83	전북동	용포	오효산(목)	에스더 5전도회
84	대전서	두화	유사무엘(전)	루디아 2전도회
85	경안	계동	이동진(전)	왕경래, 김정희
86	경서	관천리	이문규(전)	요한 5다락방
87	경기	풍계리	이상근(목)	모세선교회
88	경안	양평	이순화(전)	서초 1, 2다락방
89	경안	송내	이용빈(전)	에스더 4전도회
90	군산	대암	이일준(전)	루디아 1전도회
91	경서	요성	이종화(전)	예배위원회
92	경서	봉촌	임종근(전)	베드로 2선교회
93	목포	복용	백규진(전)	루디아 2전도회
94	전북동	청량리	정장현(전)	김대호
95	목포	가교	차재우(전)	루디아 4전도회
96	전북동	진도	채경석(전)	최중시
97	경남	거림	최경수(전)	루디아 2전도회
98	전북	백도	최유창(전)	고후덕
99	경안	명계	최종진(전)	바울 1선교회
100	경서	공검서부	정주옥(전)	김광신

▶ 정적

번호	노회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14	목포	보길중앙	류영구(목)	에스더 1전도회
55	전서	화봉	김용모(전)	하영수, 이재원

2월 학습·세례식

2월 학습·세례식이 14일(수) I, II부 예배시에 거행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2일(월) 오후 7시 4층예배실에서, 문답은 13일(화) 오후 7시 4층 예배실에서 한다.

한국로잔위원회

한국로잔위원회가 9일(금) 오전 7시 우리교회당에서 열린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이날의 모임에서는 한국교회의 실태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상반기 장학생 선발

천국일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장학회(회장: 김대호 장로)에서는 1996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우리교회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이 모범이 되는 교회 내의 학생과 지역사회 극빈자 가정의 학생,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 일년에 두 차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장학금 신청은 2월 11일(주일)까지 접수하며 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다. 문의는 교구담당 목사나 해당 교회학교 지도 교역자에게 하면 된다.

김동무

절제와 사랑이 조화된 식탁의 교제들



○...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일이나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쓰는 일은 분명 성경에서 권장한 일이다. 그런데 올해 다락방 모임, 전도회 모임이 활기를 찾고 가정에서 모임을 갖는 일이 많아지면서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먹는 문제가 문제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지만 지나치게 화려한 대접에는 부담감과 위화감이 따를 수밖에. 식물(食物)은 분명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감사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모임 때 영의 양식인 말씀과 위치가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초대교회 때의 유무상통의 정신을 되살려 모임때 각가정에서 소박한 음식 한접시씩 가져와서 나누어 먹으면 어떨까? 서로의 음식 솜씨도 배우고 사랑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은 식물로써가 아니라 은혜로써 굳게 하라고 하셨다(히 13:9). 절제와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된 식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전 10:31).

새로운 유행어 - "2년만 기다리자"

○... 주일마다 식사문제로 번거로운 각 부서를, 마땅한 교제의 장소나 기도처를 찾지못해 배회하는 교회학교 학생들, 회의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다음 사용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하는 교사들... 4층 복도에 전 시된 새 예배당의 투시도를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2년만 참자"고들 했다. 물론 세월이 지난다고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우리의기도와 헌신이 지속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 목회자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연복회 회장의 자격으로 6일(화)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또한 9일(금)에는 로잔위원회 의장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논문을 발표한다.

■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신청 접수 ■

- 제 9학기 신청서 교부 및 접수일 / 1996년 2월 26일(월) ~ 3월 25일(월)
-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
- 등록금 / 한 학기(10주)에 만원
- 신청서 접수 및 수강 안내 / 한국교회강신연구원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517-7651 ~ 5, 팩스 512-1225)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하여
2. 계절학교를 통해 거듭난 인간·성숙한 신자·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3. 농어촌 교회자매들을 위하여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